



### **아르헨티나, 유지종자 노동자 파업 중단 명령 후 노사 협상 개시 (Argentina halts hours-long oilseed strike, forcing talks)**

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,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요일 시작된 전국 규모의 유지종자 노동자 파업에 대해 개시 수 시간 만에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,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수출업체들은 임금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. 이번 파업은 세계 최대 대두박 및 대두유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유지종자 가공 공장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.

### **브라질 중남부 설탕 생산량, 4월 하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(Brazil key sugar output more than doubles in late April, UNICA says)**

수요일 업계 단체 UNIC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브라질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인 중남부 지역의 4월 하순 설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9.48% 증가한 180만 톤을 기록했다. 같은 기간 사탕수수 압착량은 4,006만 2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3.12% 증가한 수준이다.

### **인도 쌀 수출 감소...이란 전쟁으로 바스마티 수출 차질 (India rice exports decline as Iran war curbs basmati shipments to Gulf)**

인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, 미국·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걸프 지역으로의 프리미엄 바스마티 쌀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2026년 1~4월 인도의 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세계 쌀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는 통상 태국, 베트남, 파키스탄 등 3대 수출국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수출한다. 수출 감소는 기록적인 쌀 생산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이미 5% 이상 하락한 인도 국내 쌀 가격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.

### **한국 제분업체들, 미국·캐나다산 밀 약 10만 톤 구매 (South Korean mills buy estimated 100,000 tons of wheat from the US and Canada, traders say)**

한국의 제분업체들이 수요일 국제 입찰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산 제분용 밀 약 10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. 유럽 트레이더들에 따르면, 구매 물량은 미국산 5만 톤과 캐나다산 5만 톤으로 구성되었다. 이번 입찰은 여러 종류의 밀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모든 계약은 FOB 기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출처: Thomson Reuters